

■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물량 해외이전 배경과 파장은

협력사 줄도산 우려... 광주경제 한축 무너진다

삼성 "수출 늘수록 손해"...내년 추가 이전설 협력업체 "지역 전략산업 손 놓고 있을텐가"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올들어 광주사업장 생산물량 중 30%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의 납품 물량이 급격히 줄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물량 감소가 올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생산물량 해외 이전 왜? = 우선 상품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기 등 저가형 모델의 경우 국내 인건비·수출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수출이 늘어날수록 손해라는 논리다. 다만, 동남아·남미 등의 제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에서 생산·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물량이 30%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연장되면서 직원들이 지쳤고, 40%가량 오른 물류비도 부담"을 수출물량 일부 해외 현지법인으로

로 빼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물량 감소가 광주사업장의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전환해 매출 4조원대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만원 이하 저가형 청소기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로봇청소기로 매출액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유지되겠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10대 물량의 청소기가 로봇청소기 1대로 줄어들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내년 모든 수출물량 이전설 '솔솔' = 협력업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해외이전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에 광주사업장의 수출물량 전체를 해외로 옮긴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서다.

광주사업장은 전체 생산물량의 60%가 수출로, 이전설이 사실이라면 올해 30%에 이어 내년에도 30%가 해외로 옮겨간다. 이에 따른 파장은 광주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가들은 매출이 2배가량 많은 기아차 광주공장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중 30%가 점차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지역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삼성광주전자의 냉장고 생산라인.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사업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는 엔진 등 고가의 핵심 부품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지만, 삼성전자는 95% 이상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수출물량의 해외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 협력업체의 70% 이상 줄도산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납품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함께 갈 수 있다고(협력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기의 가전산업 광주시는 방관만=광주시는 가전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해외 이전에 따른 협력업체 위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하지

만 기업이 행하는 일인데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크다"며 "일본 등으로 납품선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뭇 부활할까

한나라 "홍대표 주변의견 청취" 기류변화 시사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 홍준표 대표의 호남 배제론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홍 대표가 최근 주변 인사들로부터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선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홍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고민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7일 전했다.

이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관례대로 충청·호남 인사 한 명씩을 임명하는 것으로 선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한 당내 분위기가 홍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 배제'라는 평가에 대해 호남은 물론 호남 출신 유권자

분포가 높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다, 김정권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것과 같은 갈등의 재연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근은 "홍 대표가 인선에 대해 의견도 취합하고 연락할 분과 연락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월요일쯤 인선을 마무리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최종 협의를 통해 이번주 중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에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이 "충청·호남 출신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해온 관례를 깨고 충청 출신 인사 두 명만 임명하는 것은 호남 배제"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현태 현충원 안장' 졸속심사 논란

심의위원 전원합의 관례 깨고 서면심의로 대체 수감생활 전력이 강창성씨 안장 거부와 대조

국가보훈처가 최근 제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졸속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심의에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9명만이 참여했고, 그동안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전회의에서 합의 처리해온 관례를 깨고 전자서면심의로 대체된 경우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심의위원장인 우무석 보훈처 차장은 "15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가 참여하면 성원이 된다"면서 "이번 심의에는 9명이 참여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8명은 안장 찬성, 민간위원 1명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참한 6명 가운데 서면심의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민간위원 3명은 기권처리됐다. 심의에 참가한 정부 쪽 위원 6명은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안 씨의 안장 여부를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장군의 경우 시신 안장 등의 이유로 개별 서면 심의를 해왔고, 유족이 49세(12일)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했다."라고 서면 심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씨가 잔형 집행 면제로 복권됐고,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안장을 허가했다.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6일 대전국립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된 고(故) 안현태씨 묘비. /연합뉴스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실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를 돕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은 생계형 범죄도 아닌 뇌물과 실형을 받은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한 것으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5공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은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에 대해선 전역 후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들어 2006년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국립목포대학교
해양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http://owec.mokpo.ac.kr

"작은 거대한 대학" ACE
국립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 산업(해양풍력·태양광)을 선도할 거점대학 국립목포대학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미래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자연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구현합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풍력/태양광 에너지 관련 분야의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책임지고 육성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수시	9. 9(금)~9. 16(금)
	정시 가·다군	12. 23(금)~12. 28(수)
	약학대학 정시 가·나군	11. 30(수)~12. 6(화)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거야 원... 납량특집도 아니고...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